

2014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직접선거 1차 선거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조합원께 드리는 글

1. 민주노총 ‘직선제’ 1차 선거 결과 최종 투표율은 62.7%로 집계 되었습니다.

12월 9일, 19시15분 현재 가맹(산별)조직으로부터 375,161명(투표율 52.55%)의 조합원이 투표했음이 보고되어 중앙선거관위는 최종 투표율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16개 개표소에서 개표선언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50%이상 투표시 개표)에 의거 개표선언을 했습니다. 개표가 완료된 후 62.7%로 최종 투표율이 확정된 것은 전국 곳곳의 투표인 수의 정확한 파악이 단시간에 쉽지 않은 사정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퇴직, 탈퇴, 제명 등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재적인원에서 삭제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종 개표결과에서는 재적선거인이 감소되었습니다.

2. 12월 10일 잠정 개표 결과와 달리 12월 11일 최종 개표 결과 1위와 2위 후보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

1위와 2위 후보 순위가 뒤바뀐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잠정적인 개표 결과를 발표할 시점인 12월 10일 14시까지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1만5천여 명의 선거인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무적인 측면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16개 지역에서 개표 결과를 엑셀파일 양식에 입력, 집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엑셀파일 양식의 개표현황표 시트에 개표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개함시 “투표용지수”와 심사부에서 “각 후보별 득표수·무효표의 합”, 검열·집계부에서 “각 후보별 득표수·무효표의 합”이 동일해야 엑셀파일의 비교란에 “정상”표기가 되어 전체 합계 데이터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본부에서 비교란에 “검토바람”이라는 표기가 된 것을 “정상”이 되도록 점검하지 않아 민주노총 지역본부 개표소에서 매시 30분과 정각에 발표한 개표종간집계 데이터에 “검토바람”표기가 된 투표소의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선거규정상 개표 시 투표록 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자수를 초과한 투표용지수(이하 ‘초과된 투표용지수’) 투표함의 경우, ‘초과된 투표용지수’의 총합이 당선자 결정 또는 결선투표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 투표함을 유효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투표함을 무효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조합원을 임의로 등재할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중앙선거관위가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엑셀파일 양식의 “초과용지-임의등재” 시트에 “초과된 투표용지수” 투표함과 “임의등재” 투표함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정상개표와 동일하게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비교란에 “보류”를 입력해야만 전체 합계 데이터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본부에서 “초과용지”, “임의등재” 등으로 입력해서 해당 투표소의 데이터가 전체 합계 데이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력 오류로 인한 데이터 미반영을 검수, 보완하여 미반영 데이터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각 후보가 득표한 수와 무효표 수 등이 모두 변화했습니다. 최종 집계한 결과, 잠정 발표 때와 달리 후보의 순위가 서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종 개표 결과가 늦게 발표된 점과 함께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순위가 바뀌는 등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3. 결선투표는 12월 17일 0시부터 23일 18시까지 진행합니다.

모든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결선투표 공고를 한 것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남은 개표 분량이 4개 후보조 가운데 2위와 3위의 표 차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후보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첫 직선제를 완료하여 민주노총 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부터 재개되는 결선투표에서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차 투표와 같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14년 민주노총 ‘직선제’는 조합원의 손으로 완성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첫 ‘직선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직접 참여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민주노총을 세울 수 있도록 결선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시시오.

2014년 12월 12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want to](#)